

“ 마지막 심판 ”

■ 이종윤 원로목사

우리는 심판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추론한다. 마지막 심판이란 그 이전에도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다른 심판이 없다는 말이 된다. 어떤 이들은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을 판단한다고 한다. 그 후 신자들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도 있다. 심판이 세 개인지 하나인지 성경을 통해 확신은 못하나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다.

불신자도 신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의 행위들이 다 기록된 책들이 있어 그 앞에서 변명이나 항변할 수가 없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 주 되시므로 심판에도 차등이 있다. 멸망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비교적 깨끗하게 산 사람은 덜 심판을 받는다. 신자들의 심판에도 차등이 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구원에도 차등이 있다는 것이다.

천국 턱걸이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가보아야 안다.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간신히 빠져나온 뚝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9-10) 불신자는 행위의 책들에 근거하여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 신자는 상급심판을 받는다. 상급에도 차등이 있으며, 불신자의 형벌에도 차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동기까지도 보시고 판단하신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마 6:1)고 하셨다.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 앞에서 선행이나 설교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과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동기를 보신다는 말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가가 기준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문제도 심판의 기준이 된다. 우리가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정결하고 죄로 오염되지 않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이는 경성하게 된다. 우리의 동기, 행위, 말 등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행동과 동기 전체를 보신다. 은밀한 중에 전체를 보신다. 분명히 자기의 행한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나 누구의 행위 인가가 중요하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린양이 우리 대신 우리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 어린양의 피를 믿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미 “자비의 심판대 앞에 섰었기 때문이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4) 자비의 심판대 앞에 섰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행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이미 판결이 나 버렸다. 그러므로 그 판결과 동시에 우리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등재되었기에 거기에 등재된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고 자비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심판날 두려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두려워 할 이유는 없으나 경성해야 할 이유는 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엄청난 구속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면 멸망하겠지만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하여 영생의 길로 들어감을 얻었음을 감사, 찬양, 헌신해야 한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COVID-19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는 사순절 공동기도문으로 한마음 되어 더욱 깊이 기도하며 예배할 때입니다.

* 사순절 공동기도문 : <http://www.seoulchurch.or.kr/upload/Lent.jpg>

예배당에서는 꼭 스티커가 있는 자리를 확인한 후 앉으시고, 대화 시에는 상호 간에 거리를 유지하며,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 연습이나 각 부서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침, 발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때까지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320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달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십니다 ”

■ 막 1:4-8

만민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는 계절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자기를 살피는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와 자기 점검, 삶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도,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였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자기의 죄인 됨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회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1. 왜 회개인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5) 백성들조차 신앙과 양심에 의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 영혼을 파는 일을 서슴지 않는 역사 퇴행의 시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임재는 다가왔는데 너도나도 죄에 빠져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고민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광야에 살며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삼고 낙타 가죽옷을 입고 시대를 질책하고 모든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가 살 길이며 회개가 희망이며 회개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절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현재의 모순과 비리에 눈감고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2. 회개란 어떻게

‘회개’는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 가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대하는 불신과 배척의 마음을 바꾸어 영접과 신뢰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회개는 더 구체적이어서 삶의 내용 자체가 변화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죽한 줄로 알라.’ 일상생활의 지극한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정상적인 일을 행하지 않아서 갈등과 다툼이 폭발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약자의 절망이 가중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개인의 회개도 열매가 있어야 진정성이 있고 교회의 회개도 열매가 그 진실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주님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3.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요한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물러들었고 대중들은 그에게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라고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진짜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이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이며,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실 그 분을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회개요, 삶의 전환이며,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음성이었으나 거역 못할 능력의 음성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신 예수님,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 시류에 영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온 날들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능력 많으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임상헌 장로
II 오전 11시	김익환 목사	서문석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히 13:15-16...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4(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6(사순절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51(137)...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막 1:4-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십니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268(202)...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김익환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사 12:2 인 도 자
 찬 송 26(14) 다 함 께
 기 도 정성우 집사
 찬 송 315(512) 다 함 께
 성 경 행 18:1-1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 설 교 자
 * 찬 송 499(277)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장석남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박미정 권사 II부: 박진주 권사
 성 경 행 18:12-2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많은 유익을 주는 일꾼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안용곤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교 회 소 식

☛ 모 임

1. 권사회 헌신예배 준비 모임 / 20일(주일) 오전 11시 502호
2. 한나 전도회 월례회 / 20일(주일) 3부 예배 후 502호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2. 세례식 신청 - 금년도 첫번째 세례식인 4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4월 10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 3월 27일(주일)
- 세례 교육 : 4월 3일(주일) 오후 1시 609호
- 세례 문답 : 4월 3일(주일) 오후 2시 609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13. 이번주 심방 일정
1-5, 1-7, 3-6, 3-7, 9-5, 9-6다락방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수요일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819명	420명	2,239명	481명	1,892명



마음이 열릴 때

몇 날을 굶고도 식욕이 없는 사람은 병든 사람인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닫혔기 때문이다. 마음을 열면 자기의 필요만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까지도 보게 된다.

재물이건 지식이건 무슨 은사이든 마땅히 바르게 사용하려면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한다. 하나님은 결코 나 혼자 독점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닫혀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진리 되신 주님을 영접하라. 그때 믿음의 결단도 행동의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오늘의 어둡고 혼란한 사회를 타기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닫힌 마음을 주님 앞에서 크게 열자.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